

# 원스톱 홍보싱크탱크 맹활약

## 임실군, 지난해 도내 군 단위 최초 홍보담당관 신설... 관광객·고향사랑기부 역대 최대

임실군이 지난 해 홍보담당관 신설 효과에 힘입어 올해에는 부서내 홍보 마케팅까지 조직해 천만관광 시대 달성을 위한 집약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홍보싱크탱크를 본격, 가동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도내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홍보담당관을 신설했다. 홍보담당관은 언론을 아우르는 공보팀과 임실군청 공식SNS를 전담하는 뉴미디어팀, 홍보가 주요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2025임실방문의해팀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군은 지난 해 임실방문의해를 강조하는 현장 중심 홍보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미디어·SNS 홍보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홍보 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지난 해 역대 최대인 918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기세에 힘입어 군은 올해 1월 기준 2025임실방문의해팀을 해체하는 대신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해 관광객 유치와 주요 군정 정책 홍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했다.

신설된 홍보마케팅팀은 △축제 및 다 지자체 현장 홍보부스 운영 △방

송·유관기관 연계 홍보 △인플루언서 캠퍼서 △모바일 스탬프 투어 △기관·단체 방문 유치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며 관광홍보 접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군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기억하는 체험형·참여형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육정호 출렁다리과 봉어섬 생태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 관광지 △왕의숲 성수산 자연휴양림 △관촌 사선대 등 핵심 관광자원은 물론 △육정호 벚꽃축제 △임실 정미축제 △임실N치즈축제 등 사계절 대표축제를 홍보 영상과 콘텐츠로 집중 조명해 '연계 와도 즐거운 임실'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SNS 홍보 경쟁력도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소통 중심 콘텐츠 확대와 플랫폼별 맞춤형 운영 전략을 추진한 결과, 공식 SNS 4개 채널(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의 총 구독자 수는 2026년 1월 기준 5만 2,400여 명으로, 2024년 대비 37.5%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스토리와 체험

을 결합한 기획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임실의 일상·관광·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는 한편, 주요 군정 정책에 대한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보와 연계된 고향사랑기부 역시 지난 3년내 가장 많은 모금액을 달성했다. 지난 해 임실군의 고향사랑모금액은 총 13억6800만원이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이후 누적액은 31억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했다.

군은 올해도 홍보전략과 연계해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부사업 확대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10만원 초과 축제 △임실N치즈축제 등 지역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해 기부자의 실질 부담을 크게 낮추고 참여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지난 해 홍보담당관 신설로 각종 축제와 지역브랜드, 농특산물 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적잖은 성과를 이뤘는데, 올해는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강화된 홍보전략을 통해 사계절 축제의 핵심 관광자원, 군민을 위한 정책을 대내외에 각인시켜 천만관광시대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탄력

## 남원시, 전북자치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2억 1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선정으로 관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기업지원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지역 기업 약 40개사를 지원하고, 15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용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

와 매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시제품 제작 및 상품 고도화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 △MD 상담 및 유통 채널 연계 △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운영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단발성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에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산불대책본부 본격 가동

임실군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1월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상경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산불대책본부는 군정을 중심으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함께 운영하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과 입산자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산립 입점지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에



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립 입점지역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산불 발견 즉시 신고(임실군 산림 녹지과 063-640-4232 / 임실군 소방서 119)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농기센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성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난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불 발생이 30% 이상 감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전년 대비 33% 증액한 총사업비 1억4천만원을 확보해 130ha에 지원 인원 500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월 19일부터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읍면동 행

정복지센터로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1인당 1일 1ha 이내로 제한되며, 65세 이상 고령농, 장애인(거동 불편자 포함),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립 입점지 100m 내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사업 수행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상반기에는 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하반기에는 발작물(고추, 참깨, 들깨)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A등급' 획득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적으로 우수한 재난 대응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역 안전 관리 체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순창군의 행정 역량이 전국 상위권임을 입증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험요인,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산정하며, A등급 지자체는 전체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사진은 지난해 집중호우 수해 복구)

의 15% 미만이다.

이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순창군은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

추가 지원 2% 가산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평소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위험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선제적 시설물 관리를 실시해 왔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에도 순창군에서는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특보 발효 직후 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 현장 중심의 복구 활동으로 조기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농기센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나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선다.

현장지원과에서는 과수(사과, 배, 복

숭아, 오미자, 감, 자두)와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풀밭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산너발레, 꽃매미 등), 토마토콜나방 적용 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지원과 소득기술



팀(063-620-80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외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적 공간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